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영암군 로컬푸드직매장’ 신북 장산리에 18일 개장

농·특산물 판로확보·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소재한 영암군 로컬푸드직매장이 민간위탁(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에 개장한다.

이번 개장하는 영암군 로컬푸드직매장은 신북면 장산리 886-1번지에 소재한 1994년 4월에 건축된 건물로 영암군 농특산물판매장으로 민간위탁 운영해오던 것을 2017년 6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 영암군 로컬푸드직매장 리모델링 실시실계용역을 마치고 지난해 1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개장, 전기, 소방, 냉방설비 설치 등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했다.

또한, 영암군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위해 내실있게 준비해서 지난해 9월까지 영암군 농특산물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과

민간위탁 운영 영암군의회 등의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

군 관계자는 “영암군 로컬푸드직매장은 두 차례의 모집공고를 통해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박종남)만이 모집공고에 응해 지난해 10월 22일 영암군 농·특산물판매센터운영위원회 개최결과 민간위탁운영자가 선정됐고, 영암군 로컬푸드직매장은 직매장 건물규모는 135.34㎡로 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에서 2018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3년)까지 운영하게 되며, 조만간 자체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해 신신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손님맞이 준비를 해서 이달 18일 개장을 개최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영암군 로컬푸드직매장 개

장으로 대농가에 비해 유통분야에서 취약한 지역 영세농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판매 품목은 로컬푸드 회원 농가들이 생산한 신선채소를 비롯한 잡곡류, 가공품, 유제품 등 대부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으로 직접하게 된다. 이번 개장으로 소비자는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암군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은 이번 개장하는 영암군 로컬푸드직매장(영암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영암농협, 삼호농협) 등 총 3개소이며, 권역별 직매장이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 이용편의성 증대, 영암군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담양군, 농업인정보화 교육생 모집



친환경 농업의 메카 담양군이 지식정보화 시대에 선도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진행한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스마트폰 농업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정보능력 습득을 통한 지식정보화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는 2019년도 농업인정보화 교육을 운영할 예정으로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이번 교육은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용, 스마트폰 활용, 파워포인트, 엑셀, 블로그, ITQ 자격증 과정(한글) 등 농업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14개 과정을 운영하며 과정당 20명씩 총 2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교육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규과정 외에도 각종 농업기술 관련 정보를 교육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과정별로 주 5일, 2시간씩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인정보화교육장에서 열리며,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과(☎061-380-344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교육생들이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등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강의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여주시,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질환’ 확대

전치태반·질박유산·분만전출혈 등 6개 질환 추가

여주시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위험 임신부 질환이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추가된 6개 질환은 전치태반, 질박유산, 양수과다·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부력증이다. 기존에 지원된 5개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증

에 보건의료(061-659-4262)로 하면 된다.

지난해 7~8월에 분만한 임신부는 6개 추가 질환에 대해 2월 28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고위험 임신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곡성군, 만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 실시

곡성군은 1월부터 3월까지 지역 내 272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치매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치매예방을 위한 기억력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1차 순회 치매선별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을 경우 2차 검사(치매진단, 감별검사)도 무료로 진행한다. 또한 협약병원(곡성사랑병원)이음 시에는 확진을 위한 3차 검사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진에 참여한 한 주민은 연말에 기억력 검진안내문 통지를 받았으며, 이후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꼭 3차까지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치매는 아름다운 기억을 잃게 만드는 대표적인 노년기 질환”이라며,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발달마을에서 치매예방인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강진 평리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강진군은 지난 8일 군동면사무소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군동면소재지 일원을 ‘평리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평리지구’에 대한 사업지구 선정배경,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평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경계·위치 등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등록사항을 바

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강진군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어 지적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고 경계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부담이 감소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상숙 민원봉사과장은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진=김영휘 기자

화순군, 벼 육묘상자 처리제 신청 접수

화순군이 적극적인 농업·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군정 목표 중 하나인 골고루 풍요로운 부지농업 실현을 위해 벼 일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병해충 방제 횡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크고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화순군은 관내 벼 일반 재배(4000ha)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벼친환경 재배 농가는 제외) 각 읍·면사무소에서 1월 말까지 신청받는 다. 이후 2월에 약제를 선정하고 4월에 농가에 공급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완도군, 전북 ASC·해조류 ASC-MSC 인증 추진 박차

완도군은 지난 9일 전북 ASC, 해조류 ASC-MSC 인증 확대를 위한 심사 및 관계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완도군은 아시아 최초로 14개의 전북 어가에서 ASC 국제 인증을 받는데 이어 전북 ASC 인증 확대 및 해조류 ASC-MSC 인증을 추진하고자 인증에 따른 준비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DNW GL, CU, 로이드 등 국제 인증 심사기관과,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MSC(해양관리협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인증 심사 기준에 대한 발표와 질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ASC, ASC-MSC 인증은 신뢰받는 국제 인증인 만큼 신청 어가들이 심사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것들이 많고 심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군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인증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국제적 인증 기준에 부합한 해양환경 및 퇴적물 조사 등을 시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찬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찬디

장성찬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